

한국-인도네시아 석유 공동개발 합의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석유 개발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민·관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인도네시아를 방문중인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5월1일 자카르타 에너지 광물부 청사에서 푸르노모 유스기안토로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만나 석유 공동개발에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석유 공동개발의 주체로 한국은 석유공사와 SK가, 인도네시아에서는 국영 석유공사가 나서게 된다.

김영주 장관은 유스기안토로 장관과의 면담에서 석유 외에 유연탄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 MOU도 체결하는 등 에너지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MOU 체결에는 황두열 석유공사 사장과 신헌철 SK 사장, 이한호 광업진흥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영주 장관은 5월2일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을 접견하는 등 인도네시아 고위층과 연쇄면담을 갖고 자원에너지 개발 협력 외에도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 방위산업 등에서 한국의 진출과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7/05/02>